

홈 > 뉴스 > 뉴스 > 북미 | 한인회/단체 소식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예담한복과 MOU 체결

한복 세계화와 한국 역사문화 알리기 사업 협력

2016년 05월 06일 (금) 14:54:24

편집국 ✉ dongponews@hanmail.net



(왼쪽부터) 추민수 대표, 최미영 회장(사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최미영, 이하 NAKS)는 지난 5월 3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예담한복의 추민수 대표와 만나 두 단체가 상호협력을 통해 한복 세계화와 한국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협력MOU를 체결했다고 알려졌다.

아동 한복 분야 업계 1위인 '예담'의 추민수 대표는 2006년부터 매년 200여 벌씩 지금까지 2천여 벌의 한복을 세계 곳곳의 한글학교와 한국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해 왔는데, 올해부터 NAKS와 별도의 협력사업을 갖고자 미국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예담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로 NAKS 산하 14개 지역의 대표 학생들이 모여서 겨루는 '나의 꿈 말하기대회'에 한복을 기증해왔다.



이번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각 지역협의회 마다 정기적으로 한복을 기증받게 됐다. 기증된 한복을 주말한국학교의 행사와 발표회에 사용함으로써 미국 내에서의 한복 입기 활성화 사업 및 한복 세계화에 앞장 서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한국실크연구원 김문식 본부장도 동행했는데 한국의 아름다운 비단을 사용하여 제작된 한복의 미국에서의 수요 및 한복 세계화 진흥의 물꼬를 트고자 희망한다고 했다.

최미영 총회장은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한복을 기증해 주심에 감사하고,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정기적으로 한복을 지원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더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동석한 장동구 NAKS 이사장은 "한국학교들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행사 시에 학생들에게 입힐 한복을 구하느라 학교마다 애쓰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다. 기증된 한복을 입고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 예절과 한복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7월에 덴버에서 개최되는 NAKS 학술대회에서 한복을 주류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게 된다. 한국문화 체험관에도 기증된 한복을 전시하고 한국 놀이 등을 통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한복을 무상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